

세계의 공공장소 금연정책

이광영 / 한국일보 편집위원

***지중해 동부:** 9개국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 Cyprus, Egypt, Jordan, Saudi Arabia, Sudan 등 5개국은 법으로 흡연을 규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보건과 학교시설에서와 마찬가지로 정부건물과 사무실에서도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유럽:** WHO유럽지역에서는 27개국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 24개국은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공공장소에 폭넓게 적용되는 흡연규제법은 몇몇 형태의 장소만을 대상으로 하기 보다는 보다 일반적인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Belgium, Bulgaria, Czechoslovakia, France, Greece, Iceland, Ireland, Ital.다.

Malta, Nether land, Poland, Portugal, Romania, Spaine 등이 이들 나라에 속한다. 27개국이 보건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이중 21개국은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27개국이 학교시설과 청소년들을 위한 장소에 대해 흡연을 금하고 있다. 14개국이 작업장에서 흡연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6개국이 흡연에 관한 규례를 갖고 있다. 이중 Bangladesh,

India, Thiland 등 3개국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오락시설, 병원과 정부건물이 대부분 규제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서태평양:** 16개국이 흡연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중 Australia, Hong Kong, Macao, Malaysia, New Zealand, Papua New Guinea, 한국, Singapore, Vietnam 등 9개국이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16개국 모두가 보건부를 비롯한 대부분의 행정부에서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부분 州와 홍콩 싱가포르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곳이 없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나라의 수는 계속 늘고있다. 1982년 흡연을 규제하는 나라는 31개국이었는데 1990년 60개국으로 늘어났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모든 입법조치들의 70% 이상이 1980년 이후 나타났다. 이중 30% 정도는 1988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정부와 국민이 수동흡연이 가져다 주는 건강장애 문제에 대처하려는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보다 강력히 욕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내에서 담배연기가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반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해졌다. 담배연기는 4천종 이상의 각종 화합물질이 들어있다. 이중에 일산화탄소, 니코틴, 40종이 넘는 발암물질 등 독성이 강하고 건강을 해치는 물질들이 포함돼있다.

많은 연구결과는 담배연기가 비흡연자에게서도 건강에 나쁜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담배연기에 단기간 노출 되면 눈, 코, 목에 자극을 일으키며 감기, 두통, 전신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담배연기가 갖는 특이하고 지속되는 악취때문이다. 비흡연자는 흡연자에 대해 담배연기의 영향이 보다 예민하다. 무의식적인 수동흡연은 어린이에게 감기나 숨을 헐떡거리는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 천식이 있는 어린이와 아토피성이 있는 사람에겐 특별히 위험하다. 담배연기에 비흡연자가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과 심혈관질환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며 폐기능이 다소 감소한다.

연구결과는 폐암으로 사망한 비흡연자 가운데 꽤 많은 비율이 어려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 담배연기에 노출됐던 사람들의 입을 보여주고 있다.

밀폐된 공공장소의 실내공기 분석결과 실내오염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미립자 수치가 흡연이 금지된 곳에 비해 허용된 곳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동흡연과 관련된 건강위험도는 보다 건강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의 일부로서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숨쉬기 위한 비흡연자의 기본권과 맞물려있다.

도시인구의 80%이상이 매년 2천시간 이상을 사무실에서 보낸다. 공기의 질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담배연기 속의 발암물질 농축도를 밀폐된 장소에서 안전한 수치로 끌어내리기 위해 환기장치에 에너지와 비용면에서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울로 증가됐어야 했음을 실험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흡연행위에 영향을 주도록 마련된 법적 조치는 효과적인 국가흡연억제계획의 요체이다. 공공연히 흡연을 금하는 법률은 담배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광고하는 나라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나라에서 까지도 그같은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고 있다. 흡연은 화재위험 때문에 일정한 공공장소에서 허용되지 않고 있을 뿐이다.

WHO는 비흡연 정책이 모든 밀폐된 장소와 음식점, 교통시설, 작업장과 오락장에 적용되어지도록 촉구해 왔다.

공공장소에서 흡연규제법은 범으로 보호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작업 환경에 대해 확실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어느 장소이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곳이 작업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주요국가의 금연정책은 대략 다음과 같다.

캐나다-실내에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장소로는 정부 또는 시 산하기관의 구내, 학교, 보건시설, 회의장, 승강기, 도서관, 운동과 오락장 등

이 포함된다. Quebec에서는 1986년부터 이를 보다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

주정부는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규례를 만들어 작업장에서 흡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ntario에서는 “작업장에서의 흡연법”을 1988년에 제정해서 지정된 흡연구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1988년까지 22개 자치도시들이 비흡연자의 권리를 우선해서 규례나 조례로 작업구역안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법에 따라서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보장되기 힘들 경우 흡연 자체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최근들어 자치도시 법률은 별도의 분리된 환기장치를 갖춘 흡연실을 마련하지 않고는 모든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Ottawa시가 좋은 본보기이다.

1988년 1백14개 자치도시들이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반흡연법을 제정했다. 규례는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으나 40석 이상의 음식점, 사적인 친목행사장, 환영회장, 대기실, 엘리베이터, 상점, 봉사 받기 위해 줄서 있을 때, 학교와 보건시설구내, 공공장소의 실내가 일반적으로 포함된다.

Manitoba에서는 “비흡연자 건강보호법”을 1990년 3월15일 통과시켰는데 이 법은 보건식품 교육관련 시설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1989년 효력을 발생한 “연방 비흡연 보건법”은 밀폐된 흡연실이 분리, 외부로 환기되지 않는 한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모든 작업장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이 법으로 연방정부나 은행과 통신시설 등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는데 이 수치는 캐나다 전 노동자의 10%에 해당된다.

1989년의 이 연방법에 따라 연방관할권 아래있는 모든 종업원은 사람들이 어떤 작업장에서도 흡연할 수 없도록 보장해야만 한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금연은 또한 상하원의 의장 관할하에 있는 종업원들과 국회도서관, 국회시설의 실내에서도 적용된다.

1990년 캐나다의 10개州 모두에서 1백50개 자치도시가 공공장소와 작업장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미국-금연법 제정의 목적은 비흡연자의 건강을 위해 담배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있다. “담배문제에 관한 州입법활동(State Legislative Actions on Tobacco Issues: SLATI)”보고에 따르면 현재 45개州와 콜롬비아 특별구(D. C.)가 공공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4백50개 시와 군이 흡연통제에 관한 규례를 마련했다. 이 규례는 South Carolina에서 보듯이 학교버스에서 흡연을 금하는 단순한 규제에서부터 Minnesota에서 보듯이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 또는 완전히 금하는 폭넓은 실내 청정공기법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넓다. Minnesota에서는 식당과 개인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흡연규제 대상이 된다.

주로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Alabama, Louisiana, Missouri, North Carolina Tennessee 등 5개 州는 아직 이에 대한 어떤 법도 마련되지 않고 있다.

뉴욕주의회는 1989년 6월 작업장을 포함하는 많은 종류의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강력한 반담배법을

채택했다. 이 법에 따라 흡연은 도서관, 박물관, 극장, 주에서 허가받은 보건시설, 경기장, 강당, 클럽회관, 법정, 변소, 엘리베이터, 대합실, 식품시장, 가게, 은행, 상업시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금지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 흡연자를 위한 지역이 허가될 수 있다. 사적인 장소, 담배사업소, 술집과 같은 곳에서는 흡연이 규제받지 않는다. 모든 식품취급업소와 식당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비흡연 지역을 마련해야 한다. 식품취급업소는 좌석 수용능력의 적어도 70%는 비흡연자를 위해 확보해줘야 한다.

고용주는 작업자에 흡연정책을 글로써 알려야 한다. 이렇게하는 목적은 작업장에서 담배연기를 추방함으로써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흡연은 강당, 회의실, 복도, 공동 이용시설이 있는 방에서 금지되어 있다.

34개주가 공공장소에서, 14개주가 개인소유의 작업장에서 흡연을 규제하고 있다. 연방정부 규례에 따라 대부분의 연방정부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흡연규제를 받는다. 30개주가 문화와 오락시설에서, 32개주는 학교, 34개주가 병원, 32개주가 요양원에 대해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Los Angeles에서는 식당과 카페테리아에서 흡연을 금하고 있다. 영화와 유행을 만들어내는 중심지인 Beverly Hills에서는 1987년부터 이미 식당에서 흡연을 완전히 금하는 법을 마련했다.

일본-보건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로, 오락장에 대해서는 법으로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비록 강제가 아니고 임의적이

기는 하지만 일부 식당, 정부청사 구내, 작업장, 회의장 등에서 담배를 필 수 없다. 최근 일본정부가 실시한 흡연과 건강에 관한 국민의식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에서 87%의 사람들이 흡연자로서 괴로움을 받고 있으며 52%가 흡연지역을 줄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프랑스-보건과 교육시설, 식품생산시설, 16세이하의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공여가활동장소, 오락장소, 승강기 및 몇몇 작업장에서 흡연할 수 없다. 보건시설과 같은 특정한 공공장소에서 담배판매가 '87년부터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90년 12월13일 채택된 새법은 '93년 1월1일부터 흡연자를 위해 마련한 특별한 장소가 아니면 학교와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영국-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규제하는 포괄적인 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매우 제한적으로 특수 작업환경에 적용되는 법적제한조치가 있지만 이들은 수동흡연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기 보다 안전과 위생상의 문제로 마련된 조치이다.

현재 영국정부정책은 수동흡연이 건강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개개의 고용주, 대중교통 운전자, 공공장소의 주인에게까지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도입하지 않고 있다.

고용주에게 맡긴 이 정책은 흡연규제에 임의성을 부여함으로써 한정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 영국의 흡연규제는 주로 건강그룹의 압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작업장과 식당, 영화관 등이 흡연을 제한하고 있다. †